

유망 선도기업 유치 기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분양대행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는 26일 이환주 시장, 박기대 z(MOU)을 체결했다. 남원일반산업단지는 77만㎡(산업시설용지 58만㎡) 규모로 2013년 착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입주계약 신청을 받고 있다. 분양용지는 32만5000㎡/3.3㎡, 임대용지는 분양가 10% 보증금과 연간 1.5% 임대료로 공급한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문 분양대행업체인 (주)KICC와 남원일반산업

단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유망한 선도기업 유치 및 조속한 산업용지 분양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KICC 기업유치 추진과정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투자유치 성과 달성 시 유치성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KICC는 남원일반산업단지 유치 타깃 기업 발굴, 컨설팅 및 분양안내 지원, 종합 홍보추진에 나선다.

박기대 KICC대표는 “교통여건, 저렴한 분양가, 청정 이미지 등 남원시만의 강점을 활용해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타 기관의 산업단지 분양대행을 해오며 쌓인 노하우를 적극 발휘해 건실한 기업이 입주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KICC가 수년간 구축해온 기업데이터를 활용할 유치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고온배양 GCM 인기 고공행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이달 말 현재 500톤 생산 1700여 농가에 공급 병해충 감소·작물 생육에 큰 도움... 수요 반영해 배양기 추가 설치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고온배양 GCM의 인기가 고공행진중이다. 농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센터에서도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 보급하고 있다. GCM 작년 총 생산량은 480톤이었으며 1200여 농가들에게 보급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500톤을 생산해 1,700여 농가에게 공급하고 있다. 농가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2주에 1회 공급했던 주기를 주 1회 공급으로 앞당겼고, 적절한 사용을 위해 자주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많은 농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GCM의 효과는 해충의 알 껍질, 곰팡이 균사 껍질 등을 가해하여 병해충을 감소시키며, 배양할 때 생산되는 대사산물이 항균물질, 생육촉진 물질을 만들어내 작물 생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 2월 하순부터 공급하여 두름 농가, 시설 하우스 농가들의 사용을 시작으로 블루베리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고추재배 농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인기와 수요를 반영하여 연구센터는 소용량 배양기를 추가 설치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가 스스로 배양하여 사용할 수 있게 자가 배양기 지원사업도 병

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아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고온배양 GCM 자체 활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GCM 뿐만 아니라 BM활성수, 천연추출물 등 다양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여 농가들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농자재 수령 및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문의는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650-5614)로 전화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열어

남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남원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서술시청, 강서구청, 부천시, 코엑스 등 수도권과 남원시 자매결연 도시인 서초구청, 구로구청 및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된 세종시, 전북도청, 전북혁신도시 지방인재개발원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잘 빠르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추석 제수용으로 사용될 춘향애인 농산물인 배, 사과, 포도 감부각, 추어탕, 한과, 송편, 꿀, 장류, 참기름 등 다양한 가공식품과 남원만의 특산물인 목기, 병풍, 허브제품 선물 세트들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에게 선보여 홍보·판매할 예



정이다. 또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원목기, 병풍 등 추석 제수용품과 각종 선물 세트들 소비자

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쇼핑몰인 남원사이버장터(www.lovenamwon.co.kr)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에서도 추석맞이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는 춘향애인 농산물 및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으로 혼란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을 위해 노력하는 물론, 이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추석전 햅쌀 출하용 첫 벼 수확

순창군 풍산면에서는 최근 황숙주 순창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첫 벼 수확이 진행돼 농민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었다. 벼 수확의 주인공은 풍산면 도치마을에 거주하는 박춘원(65)씨다. 박씨는 풍산면 삼촌리 924번지의 16필지 3.2ha에 윤관벼 및 동진찰벼를 지난 4월 14일 모내기해 133일만인 지난 24일에 첫 벼 수확을 했다. 이번 벼 수확량은 24여 톤으로 아직 판매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 및 도정 과정을 거쳐 추석전 도시 소비자 식탁에 햅쌀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춘원 씨는 풍산면 삼촌리 924번지의 16필지 3.2ha에 윤관벼 및 동진찰벼를 지난 4월 14일 모내기해 133일만인 지난 24일 첫 벼 수확을 했다.

또한, 지난해 40kg 한가마당 67,000원에 지역산인을 통해 판매했는데 올해는 더 높은 가격에 판매 될 것으로 희망에 부풀어 있다. 순창군 벼 재배면적은 5천2백ha로 3만 7천톤의 벼 생산이 예상되며 이번 첫 벼 수확을 계기로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면 10월 말경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신탄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벼 수확이 마무리 되는 10월말까지 물관리,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 등 단계별 영농 지도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순창군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키타리병약제, 육묘상자처리제, 영농자재 등 7개 사업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동계면 서호지구 위임국도 13호선 도로 개통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그 동안 도로 선형 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어오던 위임국도 13호선 구간중 순창군 동계면 서호지구(서호교~현포교) 구간 1.45km를 선형 개량해 최근 개통했다. 기존 도로는 급커브 등 도로 선형 불량으로 대형차량 통행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군은 전북도에 사업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전북도는 연장 1.45km, 폭 10m의 2차선 도로 선형개선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 2015년 공사를 착공해 최근 준공에 이르게 됐다. 이번 선형개선공사로 동계면 주민들은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 해소는 물론, 도로기능 향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 수송이 원활해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과 전북도는 앞으로도 협업을 통한 위험도로 시급구간을 검토하는 등 주민여론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위험도로는 신속한 선형개선을 통해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국립공원, 50년 자료수집

지리산국립공원본부(본부장 나공주)는 지리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지리산국립공원 50년사 편찬과 자료집 발간, 전시회, 기록물 등재 등을 위한 국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지리산의 오랜 과거부터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소장품을 자료집에 담고,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지리산 역사의 사회적 가치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지리산과 관련된 지역주민 생활사, 탐방객의 다양한 산행기록, 옛 문헌이나 기록, 경관사진 등으로, 수집된 자료는 자료집 발간, 전시회 운영, 홍보자료 등에 활용된다. 응모기간은 2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www.greatjiri.org에 접속해 제출하면 되고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970-108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과 (사)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임실군 귀농귀촌 역량강화 교육

임실군과 (사)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귀농귀촌 관련 기관단체 임원 및 귀농귀촌 멘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이해 및 성과 달성과 임실군의 장기적인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특강에서는 전남 강진군으로 귀촌한

이현숙 강사로부터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통한 성공적인 귀농 정착사례를 들었다. 이후 임실군 귀농귀촌 활성화의 방안을 주제로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활용한 현장포럼을 진행했다. 현장포럼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기관들의 역할에 관한 토의가 진행됐으며 도출된 의견들은 귀농귀촌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 개선 및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홈페이지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